

의복설계를 위한 비만여성의 기성복 만족도

김희숙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Satisfaction with the Somatotype & Fit of Overweight Women's Ready-to-wear

Hee-Sook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omatotype variation & 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for overweight women.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154 overweight women in Andong & Daegu areas. Employing a sample of 116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test. And 10 overweight women's brands were analyzed for sizing system of women's ready-to-wea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the satisfaction with the somatotype variation of overweight women, length items increased and girth items decreased with aging. At neck, bust, waist, hip and sleeve circumferences, 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decreased with aging. Correlation for somatotype variation & 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was significantly positive. And main sizing system of overweight women's ready-to-wear brands was size 99 & 105 cm(bust)-90 cm (waist)-110 cm(hip), and its sizing intervals was almost existed in range of 5 cm-7 cm. There were various sizing systems in overweight women's ready-to-wear brands, and it raised a problem of consumer's dissatisfaction.

Key words : overweight women, somatotype variation, 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length items and girth items, sizing system of women's ready-to-wear

1. 서 론

식생활개선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증가하는 비만인구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의류학 분야에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 비만여성을 위한 의복이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나(이진희·최혜선, 1998; 남윤자·이준옥, 2002) 아직은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그 원인은 비만여성의 경우, 의복설계의 기초가 되는 신체사이즈와 체형적 특징이 매우 다양하여 표준체형인 여성에 비해 치수체계를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복은 여러 산업제품 중에서도 신체적합성이 가장 높이 요구되는 제품 중의 하나이므로 효율적인 의복치수체계를 마련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은 세계 각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국립기술품질원, 1997; ISO, 1991; U.S. Department of Commerce, 197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의복치수체계에 대한 국제통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표준의복치수체계(KS K 0051)를 마련하는 등 의복치수체계의

표준화와 국제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치수체계는 일정한 간격으로 그레이딩값을 가진 표준치수체계 이외에 drop값(영덩이둘레-가슴둘레)에 의한 체형분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실용화되지 않고 있다.(이진희, 1998) 더구나 증가하고 있는 비만여성의 체형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더욱 부족하여 비만여성을 위한 기성복 제품생산의 혼란과 더불어 소비자의 불만이 우려된다. 산자부의 기술표준원의 주최로 열린 “의류산업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품질표시전략” 세미나에서는 의류치수를 포함한 섬유제품품질표시제도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소비자의 반응과 “재고의 부담이 크다.”는 업계의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

자신의 신체 특징을 극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의류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며(Sharronn, 1997) 각 의류브랜드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체의 독특한 사이즈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여성의 증가와 함께 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써 빅사이즈 기성복업체가 등장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 간의 치수체계의 특징이나 상이점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만여성의 경우에는 의류제품의 치수에 대

Corresponding author; Hee-Sook Kim
Tel. +82-54-820-5500, Fax. +82-54-823-1625
E-mail: sook@andong.ac.kr

한 불만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박경화 · 천중숙, 1996) 의류제품의 치수 및 기성복맞음새만족도(Bonnita·Lois, 1982)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브랜드의 생산제품에 대한 의복불만족요인이나 의복치수체계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비만여성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여 신체와 기성복사이즈체계에 대한 불만족요인을 분석하고, 각 비만여성용 의류브랜드의 사이즈시스템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 자료를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비만여성의 의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빅사이즈 의류를 주로 구입하는 소비자 중에서 40세 이전의 여성과 중년이후 체형변화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연령층인(남윤자 · 이준옥, 2002) 40대에서 60대의 비만여성, 총 1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만의 판정기준은 선행연구(손희순, 1989)에 의해 신체중실지수 1.6이상인 여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비만정도와 체형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장, 체중, 의복설계에 필요한 기본치수인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소매길이, 등길이, 엉덩이길이, 밑위앞뒤길이, 어깨너비를 직접 측정하였다.

신체만족도와 기성복맞음새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5점 척도법에 의한 설문지법을 행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문의 내용은 신체만족도에 대한 질문 13문항, 기성복맞음새 만족도에 대한 질문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2. 조사 브랜드의 선정

빅사이즈를 전문으로 하는 각 의류업체의 기성복치수 분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소비자의 연령층을 40세 이전과 40~50대, 그리고 60대 이후의 3개영역으로 나누고 연령분포별로 각각 3개씩의 업체와 연령층의 분포범위가 넓은 40세 이전의 업체 1개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업체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대상 브랜드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의복종류는 피트성을 필요로 하는 재킷, 바지, 스커트의 정장류이다. 이들 의복의 치수분포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자료로는 주로 신장,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소매길이, 등길이, 엉덩이길이, 밑위길이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0.0를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연령별, 치수별 차이검정을 위한 F-test를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여성복을 위한 사이즈체계를 정비하

여 KS-0051을 발표하였다(Korean Standard Association, 1990). 피트성이 필요한 의복의 경우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는 3cm, 엉덩이둘레 2cm, 신장은 5cm의 간격으로 설정되고, 피트성이 필요 없는 의복의 경우는 대체로 5cm의 간격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류브랜드에서는 표준치수체계이외에도 각자의 사이즈시스템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KS-0051이 강제성이 없는데다가 각 브랜드는 디자인의 컨셉에 따라 사이즈시스템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김희숙, 2004). 또한 여성의 체형은 보다 다양한 형상을 이루고 있어서 일정한 그레이딩 룰값 만으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판매대상 소비자의 연령이나 체형분포, 또는 디자인 컨셉에 따라 각 브랜드의 사이즈체계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박경화 · 천중숙, 1996). 중년기 이후의 여성은 체형의 변화가 급격하고 가슴, 허리 엉덩이부분이 비만화되는 경향이므로 각 브랜드의 표준사이즈가 소비자의 신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이정순 · 구미란, 2004) 노년층의 경우도 비만할수록 신체만족도와 의복적합성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박재경 외, 2002). 선행연구에 의하면 중년기 이후는 신체변화와 더불어 신체만족도가 낮아지며 이것은 의복의 신체적합성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재은 외, 2001; 남윤자 · 이준옥, 2002).

최근 비만여성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빅사이즈를 전문으로 하는 기성복업체가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용 빅사이즈 기성복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피트성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의복류의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박경화 · 천중숙, 1996).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통신판매업체를 연구대상업체로 포함하고 있으나 피트성을 필요로 하는 정장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체에 한하고 있다.

비만여성의 경우는 체형의 유형이 더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이진희 · 최혜선, 1998) 일정한 그레이딩값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업체 중에는 기성복과 더불어 주문복의 형태를 겸하여 생산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기존의 중년여성의 표준치수를 주로 생산하던 브랜드에서 빅사이즈를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타겟연령층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지는 않지만 40대 이후의 소비자가 많고 20대나 30대도 다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40대 이후의 비만화 경향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희숙, 2001). 인터넷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주로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복이거나 자신의 신체 사이즈보다 큰 의복을 구입할 때 대체로 이용한다고 하였다.

2004년 한국인 인체측정자료에 의하면 1979년 측정자료와 비교해서 “25년간 키는 커지고 얼굴은 작아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여성의 비만화 경향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sizekorea.ats.go.kr). 현대의 비만여성은 신체의 비만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는 패션쇼도 진행하는 등 비만여성 소비자의 욕구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비만여성의 기성복만족도의 조

사를 통하여 비만여성을 위한 의복디자인 개발과 더불어 정확하고 합리적인 의복사이즈의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다.

3.1. 비만여성의 신체계측치 분포

비만여성의 체형과 기성복만족도를 구하기 위한 연령구분은 3개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연령구분의 기준은 체형의 비만화가 시작하는 시점을 고려하였으며 구매의복의 치수도 변화가 시작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40대 이전이 45명(38.80%), 40~50대가 40명(34.48%), 60대 이상이 31명(26.72%)이다.

비만여성의 신체계측치의 기본적인 분포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직접계측자료는 Table 1과 같다.

비만여성의 기준이 되는 신체충실지수는 모든 연령층에서 1.60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40대 이후의 비만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연령별 비만화 경향은 40대<50대>40대이하>60대이상의 순으로 비만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길이항목에 비해 둘레항목의 비만도가 높아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박우미·위은하, 2003; 이진희, 1998) 2004년 표준과학원

에서 발표된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자료의 표준치수와 비교해 볼 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비만화가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체부분이 하체부분에 비해 비만의 진행정도가 높은 편이었다(sizekorea.ats.go.kr).

등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연령별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므로 비만여성의 경우도 연령별 사이즈를 고려하여 기성복치수체계를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2. 비만여성의 신체만족도

비만여성의 연령별 신체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13항목 중 12항목에서 연령별 유의차가 인정되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형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요인이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신체만족도에 대한 항목의 내용은 기성복 착용시 신체에 적합되는 부위이면서 여성의 연령별 체형변화의 척도가 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불만정도가 높은 항목은 주로 둘레항목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40~50대의 연령층에서 비만에 대한 불만정도가 가장 높았다.

Table 1. 비만여성의 직접계측자료

신체만족도	40대이하(n=45)		40대~50대(n=40)		60대이상(n=31)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신장	157.02	5.22	155.68	5.13	151.84	4.86	7.372**
2. 체중	68.57	7.49	71.62	8.13	63.92	6.46	17.172***
3.신체충실지수	1.77	0.21	1.90	0.34	1.83	0.26	8.214**
4. 가슴둘레	98.85	5.26	103.14	5.37	95.01	4.88	13.552***
5. 허리둘레	89.90	5.41	95.58	6.03	87.36	5.78	15.318***
6. 엉덩이둘레	101.57	6.15	104.06	5.11	96.33	5.27	11.688***
7. 등길이	39.20	2.23	38.95	2.05	38.45	1.66	1.040
8. 팔길이	53.29	2.74	52.85	2.51	51.23	2.04	3.244*
9. 밑위앞뒤길이	77.93	6.74	79.38	6.41	74.83	5.66	5.719**
10. 어깨너비	38.56	2.16	39.87	2.65	37.44	2.03	3.965*

* p<0.05 ** p<0.01 *** P<0.001

Table 2. 연령별 신체만족도 결과

신체만족도	40대이하(n=45)		40대~50대(n=40)		60대이상(n=31)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목굵기	2.68	1.21	3.72	1.04	4.04	1.27	11.353***
2. 어깨너비	2.38	0.68	2.72	0.97	3.07	1.19	5.175**
3. 유방크기 및 처짐	2.94	1.07	3.88	1.31	3.59	1.16	9.372***
4. 허리둘레	3.52	1.61	4.41	1.81	4.08	1.17	15.672***
5. 배둘레	3.65	1.22	4.58	1.59	4.13	0.98	12.742***
6. 엉덩이둘레 및 처짐	3.18	1.40	3.75	1.52	3.60	1.14	6.306**
7. 팔둘레	2.80	1.08	3.98	1.26	3.62	1.16	10.012***
8. 팔길이	2.07	0.74	2.56	0.70	2.74	0.69	5.732**
9. 대퇴둘레	3.23	0.85	2.57	1.02	2.71	0.92	6.519**
10. 다리길이	2.05	0.87	2.37	0.88	2.50	0.79	2.735
11. 비만정도	4.62	1.80	3.83	1.97	3.50	1.29	13.175***
12. 신장	2.19	0.66	2.65	0.82	2.86	0.59	3.732*
13. 체형	4.53	1.78	3.93	1.93	3.42	1.50	16.371***

신체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허리부분이었으며 이런 현상은 40~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체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다리항목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신체에 대한 불만정도가 높은 항목은 목굽기, 유방크기 및 처짐,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및 처짐, 팔둘레, 비만정도, 체형 등 주로 상체부분의 둘레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불만정도가 높으며 40~50대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체에 대한 불만정도가 낮은 항목은 팔길이, 다리길이, 신장, 대퇴둘레 등 주로 하체부분의 길이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비만에 대한 불만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여성의 경우 하체가 상체에 비해 비만한 A형의 체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최유경 · 이순원, 1999) Table에 나타나 있듯이 비만여성의 경우에는 서양여성과 마찬가지로 상체 비만이 많아서(Ellen et al., 1996a; Ellen et al., 1996b; 이진희, 최혜선, 1998) 이에 대한 불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체가 하체에 비해 비만해지는 경향에 불만을 보이고 있으므로 각 브랜드의 치수체계는 이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3. 비만여성의 기성복맞음새 만족도

비만여성의 기성복맞음새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14항목 중 11항목에서 연령별 유의차가 인정되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성복맞음새에 대한 불만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전체적으로는 하의보다는 상의에 대한 불만과 길이항목보다는 둘레항목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으며, 40~50대의 연령층에서 불만정도가 가장 높았다.

기성복맞음새에 대한 불만정도가 높은 항목은 전체적 맞음새, 목둘레, 소매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체형과의 어울림 등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기성복에 대

한 불만이 높았다. 기성복맞음새에 대한 불만정도가 낮은 항목은 소매길이, 밑위길이, 바지길이, 스커트길이 등 주로 하의의 길이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기성복에 대한 불만이 낮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하의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있으나(박우미 · 위은하, 2003) 비만여성의 경우는 상의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이진희 · 최혜선, 1998).

기성복맞음새 만족도는 전 항목에서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40~50대의 연령층에서 특히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다. 가장 낮은 항목은 허리둘레와 전체적인 맞음새였으며 기성복맞음새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길이항목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전체적인 맞음새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 브랜드에서는 연령에 의한 체형변화를 기성복치수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의 연령별 신체만족도 결과와 Table 3의 연령별 기성복맞음새만족도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비만여성은 신체만족도와 기성복맞음새만족도 간에는 서로 관련항목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체만족도가 높은 항목에서는 기성복맞음새만족도도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각 브랜드에서는 치수설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황진숙, 1997) 일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비만여성의 경우 하의보다는 상의의 둘레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치수를 세분화하는 치수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4. 의류제품 브랜드의 치수체계

비만여성을 위한 빅사이즈를 전문으로 하는 각 업체의 기성복치수분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10개의 연령분포별 의류제품브랜드의 치수체계상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조사대상브랜드의 판매품목의 선정기준은 자켓, 바지, 스커트

Table 3. 연령별 기성복맞음새 만족도 결과

기성복맞음새 만족도	40대이하(n=45)		40~50대(n=40)		60대이상(n=31)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전체적 맞음새	3.45	1.94	3.99	1.79	4.28	1.59	16.754***
2. 목둘레	3.64	1.57	4.18	1.72	3.83	1.50	14.071**
3. 어깨너비	2.95	0.81	3.52	0.90	3.15	0.94	6.270**
4. 가슴둘레	3.35	1.70	3.97	1.95	3.24	1.58	9.893***
5. 허리둘레	3.74	1.68	4.26	1.82	3.28	1.77	14.819***
6. 소매둘레	3.02	1.53	3.78	1.24	3.51	1.41	10.806***
7. 소매길이	2.15	0.52	2.70	0.63	1.97	0.50	3.045*
8. 상의길이	1.87	0.43	1.94	0.70	1.55	0.57	0.983
9. 엉덩이둘레	3.04	1.03	3.48	1.46	3.97	1.07	13.157***
10. 대퇴둘레	2.74	1.22	3.25	1.31	3.02	1.05	5.870**
11. 밑위길이	2.68	0.90	3.21	0.81	2.57	1.16	6.475**
12.바지길이	1.90	0.58	2.07	0.60	1.88	0.25	0.904
13. 스커트길이	1.85	0.63	1.96	0.78	1.70	0.59	1.176
14. 체형과의 어울림	3.57	1.32	3.97	1.45	3.28	1.28	8.914***

* p<0.05 ** p<0.01 *** P<0.001, 1 : 만족, 5 : 불만족

Table 4 의류제품 브랜드의 치수체계 현황

브랜드 치수체계현황	40대이하				40~50대			60대 이상		
	A-1	A-2	A-3	A-4	B-1	B-2	B-3	C-1	C-2	C-3
대상연령	20-30	25-35	25-40	30-40	35-50	40-50	45-55	50-65	55-65	60이상
판매연령	20-35	20-40	20-40	30-45	30-50	35-55	40-55	45-65	50이상	60이상
대표품목	자켓 L(88)	장갑	장갑	장갑 XL(99)	장갑	자켓	장갑 XL(100)	장갑 L(99)	자켓	장갑
기준호수	L(88)	88	99	XL(99)	99	100	XL(100)	L(99)	99	88
사이즈의 수	3	4	3	5	4	4	6	3	4	4
기클분위치수	163	160	160	160	155	160	160	160	155	155
신장	40	39	40	40	38	39	40	39	38	38
등길이	100	105	110	115	105	118	120	110	100	105
가슴둘레	88	94	90	95	92	95	100	95	90	90
허리둘레	105	112	115	120	110	128	120	116	110	105
엉덩이둘레	62	60	60	60	57	60	60	60	58	56
소매길이	29	30	30	32	30	32	31	30	29	28
팔길이	자켓 치수	KS	KS	32	30	32	31	30	29	28
치수설정기준	체계마련	KS	KS	KS	체계마련	체계마련	체계마련	체계마련	체계마련	체계마련
소비자의 치수인지도	표기된 치수를 먼저 인지	표기된 치수를 먼저 인지	표기된 치수를 먼저 인지	표기된 치수를 먼저 인지	표기된 치수를 먼저 인지	표기된 치수를 먼저 인지	표기된 치수를 먼저 인지	표기된 치수를 먼저 인지	표기된 치수를 먼저 인지	표기된 치수를 먼저 인지
교환시 치수상의 사유	가슴둘레와 팔둘레가 잘 맞지 않다	허리둘레와 밑위길이가 잘 맞지 않다	허리와 엉덩이둘레가 잘 맞지 않다	허리와 엉덩이둘레와 밑위길이가 잘 맞지 않다	허리와 엉덩이둘레와 밑위길이가 잘 맞지 않다	가슴둘레와 팔둘레가 잘 맞지 않다	가슴둘레와 허리둘레가 잘 맞지 않는다	가슴둘레와 팔둘레가 잘 맞지 않는다	가슴둘레가 작고 전체 체형과 맞지 않음	가슴둘레가 작고 전체 체형과 맞지 않음
부위치수표기 여부	사이즈 호수만 표기	사이즈 호수만 표기	사이즈 호수만 표기	사이즈 호수만 표기	사이즈 호수만 표기	사이즈 호수만 표기	사이즈 호수만 표기	사이즈 호수만 표기	사이즈 호수만 표기	사이즈 호수만 표기
비만여성을 위한 치수 고려여부	고려	고려	비만여성용	비만여성용	고려	비만여성용	비만여성용	비만여성용	비만여성용	고려
체형변화 고려 여부	치수에서 고려	고려하지 않음	치수에서 고려	디자이너과 치수에서 고려	치수에서 고려	디자이너과 치수에서 고려	디자이너과 치수에서 고려	치수에서 고려	치수에서 고려	치수에서 고려
제품의 수출여부	0	0	0	0	0	0	0	0	0	0

제품의 수출여부

등 주로 피트니스가 필요한 의류제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의복의 치수분포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인체계측자료는 주로 신장,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소매길이, 등길이, 엉덩이길이, 밑위길이가 사용되었다.

비만여성을 위한 의류제품의 브랜드에서 판매대상으로 정해진 연령층의 범위는 표준여성의 연령층에 비해 넓었으며 실제 판매연령은 대상연령에 비해 범위가 더욱 넓었다. 또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판매연령층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체형변화의 폭이 높아져서 기준계측치에서 멀어지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각 브랜드의 치수체계의 기준은 40대 이전의 연령층에서는 대체로 KS 사이즈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각 여성복의 류브랜드마다 나름대로의 명칭이나 표기방법에 의해 치수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브랜드에서는 호수의 명칭을 수자로서 표시하고 있으나 수출을 하는 업체에서는 문자표기법을 병행하고 있었다. 연령층이 높은 소비자들은 아직 수자표기법에 익숙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치수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브랜드마다 치수설정의 기준이 달라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된다. 비만여성의 치수불만의 주요 항목이 되고 있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치수는 각각 100 cm~120 cm, 88~100 cm, 105 cm~128 cm로서 치수의 범위가 넓고 Table 1에 나타난 비만여성의 실제 치수에 비해 의복이 크게 제작되고 있었다. 이것의 원인은 비만여성의 체형적 특징이 다양한데다가 소비자들이 체형을 보정하는 수단으로써 자신의 실제치수보다 훨씬 큰 의복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진희, 1998). 그러나 비만여성들도 자신의 신체에 적합한 의복을 선호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치수를 세분화하는 합리적인 치수체계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비만여성용 사이즈체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이즈에 대해 두 가지의 체형을 위한 설계법을 제안하고 있다(日本纖維新聞, 2005). 본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여성의 체형적 특징을 고려한 의복디자인이나 치수체계를 계획하는 브랜드의 수가 점차 늘고 있다.

의복호수는 대개 3~6개로 치수설정이 되어 있으며 인터넷 업체의 치수설정은 3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호수의 수가 적은 브랜드일수록 교환의 빈도가 높았다. 소비자가 제품을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치수상의 이유는 연령이 낮을수록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 등 주로 부분체형이 요인인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맞음새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형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연령증가와 함께 체형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이며, 비만여성의 경우는 40~50대가 체형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복의 신체적합성은 다양한 요인이 적용되므로 의복사이즈에 대한 불만의 폭이 넓은 것으로 해석된다(오설영·천종숙, 2002). 빅사이즈 브랜드는 대개 5~6개의 사이즈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표준치수의 경우보다 치수가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만형태의 다양함을 의미하

고 있다. 가슴둘레-허리둘레-엉덩이둘레의 중심치수는 99사이즈에 105 cm-90 cm-110 cm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편차는 5 cm~7 cm정도로 분포되어 있었다. 브랜드마다 치수체계가 매우 달랐는데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치수체계를 가진 브랜드를 꾸준히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각 브랜드는 제품의 각 기준부위의 치수는 설정하고 있으나 브랜드마다 계측치의 차이는 있었으며 호수는 기준이 되는 계측치가 실제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되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자신이 즐겨 착용하는 브랜드의 의복치수를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새로운 브랜드에서 의복을 구입할 때, 연령이 높은층 일수록 표기된 사이즈에는 거의 의존하지 않으며 직접 착용해 봐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40대 이전의 비만여성의 경우는 직접 매장을 찾기도는 인터넷상에서 의복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인터넷사용의 편의성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빅사이즈 브랜드의 다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피트니스가 필요한 의복을 구매할 때는 교환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비만여성의 기성복 사이즈를 체계화 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박경화·천종숙, 1996).

4. 결론 및 제언

식생활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비만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에 비만여성의 기성복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만여성의 신체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허리부분이었으며 신체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다리항목이었다. 신체에 대한 불만정도가 높은 항목은 목굵기, 유방의 크기 및 처짐,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및 처짐, 팔둘레, 비만정도, 체형 등 주로 상체부분의 둘레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불만정도가 높으며 40~50대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비만여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성복맞음새에 대한 불만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 맞음새, 목둘레, 소매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체형과의 어울림 등 전체적으로는 하의보다는 상의에 대한 불만과 길이항목보다는 둘레항목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으며, 40~50대의 연령층에서 불만정도가 가장 높았다. 기성복맞음새에 대한 불만정도가 낮은 항목은 소매길이, 밑위길이, 바지길이, 스커트길이 등 주로 하의의 길이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기성복에 대한 불만이 낮았다. 따라서 각 브랜드에서는 연령에 의한 체형변화를 기성복치수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의보다는 상의의 둘레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치수를 세분화하는 치수 설정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비만여성을 위한 의류제품의 브랜드에서 판매대상으로 정해진 연령층의 범위는 표준여성의 연령층에 비해 넓었으며 실

제 판매연령은 대상연령에 비해 범위가 더욱 넓었다, 또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판매연령층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체형변화의 폭이 높아져서 기준계측치에서 멀어지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4. 비만여성의 치수불만의 주요항목이 되고 있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치수는 각각 100 cm~120 cm, 88~100 cm, 105 cm~128 cm로서 치수의 범위가 넓고 비만여성의 실제 치수에 비해 의복이 크게 제작되고 있었다. 이것의 원인은 비만여성의 체형적 특징이 다양한데다가 소비자들이 체형을 보정하는 수단으로써 자신의 실제치수보다 훨씬 큰 의복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만여성들도 자신의 신체에 적합한 의복을 선호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치수를 세분화하는 합리적인 치수체계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5. 빅사이즈 브랜드는 대개 5~6개의 사이즈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표준치수의 경우보다 치수가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만형태의 다양함을 의미하고 있다. 인터넷 업체의 치수설정은 3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호수의 수가 적은 브랜드일수록 교환의 빈도가 높았다. 소비자가 제품을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치수상의 이유는 연령이 낮을수록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 등 주로 부분체형이 요인인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맞음새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형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비만여성의 기성복을 위한 가슴둘레-허리둘레-엉덩이둘레의 중심치수는 99사이즈에 105 cm-90 cm-110 cm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편차는 5 cm-7 cm정도로 분포되어 있었다. 브랜드마다 치수체계가 매우 달라서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치수체계를 가진 브랜드를 꾸준히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6. 40대 이전의 비만여성의 경우는 직접 매장을 찾기보다는 인터넷상에서 의복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인터넷이용의 편의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빅사이즈 브랜드의 다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의 비만화 경향은 매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빅사이즈 브랜드는 점차 증가추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의 글 : 이 연구는 2004년도 안동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국립기술품질원 (1997)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국립기술품질원, pp.1-500.
 김희숙 (2001) 성인여성의 경부 및 견부의 유형에 따른 길원형 및 칼리원형의 설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5), 770-782.

김희숙 (2004) 여성복의 사이즈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5), 655-659.
 남윤자 · 이준옥 (2002) 비만여성의 일대일 맞춤거들 패턴에 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학회지*, 21(2), 71-86.
 박경화 · 천종숙 (1996) 통신판매의류의 치수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43-53.
 박우미 · 위은하 (2003) 중년여성의 신체형태특징 유형별 기성복 만족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3), 235-243.
 박재경 · 이정임 · 남윤자 · 주소영 (2002) 노년여성의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8), 1186-1195.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 의류산업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품질표시전략 세미나. *어패럴뉴스*, 626.
 손희순 (1989)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의 체형과 의복치수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설영 · 천종숙 (2002) 한국여성복브랜드의 치수체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 50-61.
 이정순 · 구미란 (2004) 중년여성브랜드를 통한 기본스커트의 치수실태 및 패턴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6), 756-764.
 이진희 (1998) 비만여성의 의복치수체계 및 커버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6), 737-748.
 이진희 · 최혜선 (1998) 성인 비만여성체형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학회지*, 17(1), 103-114.
 주재은 · 정찬진 · 정명선 (2001) 중년여성의 신체지각과 이상적 연령에 따른 기성복 맞음새 만족도. *복식문화연구*, 9(5), 723-733.
 최유경 · 이순원 (1999) 성인여성의 정면체형별 사이즈스펙의 제안. *한국의류학회지*, 23(4), 575-583.
 황진숙 (1997) 신체만족도와 기성복에 대한 만족의 상관관계 연구. *복식*, 34, 183-193.
 日本纖維新聞 (2005) 婦人Lサイズ不満解消 : 1サイズ 2 體刑の設計. 3. 4.
 Bonnita M.F. and Lois M.G. (1982) "Concepts of Fit: An Individualized Approach to Pattern Design". Macmillan publishing Co., New York, pp.1-295.
 Ellen G, Shim S.Y. and Naomi R. (1996a) Women 55 years and older: part I. Current body measurements as contracted to the PS42-70 data.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2), 108-120.
 Ellen G, Shim S.Y. and Naomi R. (1996b) Women 55 years and older: part II. Overall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2), 121-132.
 ISO (1991) Standard Sizing Systems for Clothes. ISO/TR 10652 : 1991(E) p.19-23
 Korean Standard Association (1990) "Sizing Systems for Women's Garments(KS K 0051-1990)". Korean Standard Association, Seoul, pp.1-40.
 Sharron J.L. (1997)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further evidenc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1), 60-64.
 U.S. Department of Commerce (1971) "Voluntary Product Standard: Body Measurements for the Sizing of Women's Patterns and Apparel.(National Bureau of Standards Publication No. PS 42-70).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pp.1-15.
 (2005년 9월 4일 접수)